



광주FC, 울산 꺾고 2년 연속 코리아컵 ‘4강행’

프로축구 광주FC가 울산을 꺾고 2년 연속 코리아컵 4강 진출에 성공했다.

광주FC는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 울산HFC와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 시즌 구단 역사상 최초 코리아컵 4강 진출을 이뤘던 광주는 이로써 2년 연속 코리아컵 4강 진출을 달성했다.

특히 이날 4강행은 지난해 결승 진출을 막았던 울산을 꺾고 이뤄낸 결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앞서 광주는 지난해 울산을 코리아컵 4강에서 만나 1-2 차전 합계 2-3으로 지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제 광주는 이날 김포FC를 3-1로 몰라친 부천 FC와 8월 20일과 27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겨



홈 경기서 1-0 승…조성권, 후반 30분 결승골

8월 20·27일 부천FC와 홈 앤드 어웨이로 결전

뤼 결승 진출을 노린다. 부천에 승리하면 전북 현대-강원FC 승리팀과 우승을 다툰다.

부천은 현재 K리그2(2부)에 머물러 있는 팀이다. 물론 K리그2에서 상위권(3위)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광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다. 광주가 부천을 잡고, 결승전까지 넘어선다면 2022년 K리그2 우승에 이어 3년 만의 공식 대회 우승이자 구단 역대 최초 코리아컵 우승을 달

성할 수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이번 코리아컵 승리가 간절하다. 아사니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와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우승컵이 절실하다.

광주는 이날 8강전에서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헤이스와 가브리엘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정지훈, 최경록, 주세종, 아사니를 배치했고 후반은 김한길, 민상기, 변준수, 조성권이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전반전 초반 양 팀은 서로 슈팅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전반 38분에는 상대 에릭의 헤더를 김경민이 선방해냈다.

전반 43분에는 승부의 흐름이 바뀌었다. 상대 김영권이 아사니에게 백패스를 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 울산이 수적 열세에 놓였다.

후반전 시작 이후 광주는 정지훈, 주세종, 김한길 대신 박인혁, 신창무, 심상민을 투입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후반 23분 박인혁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슈팅

을 날렸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갔다.

상대 골문을 계속 두드리던 광주는 후반 30분 빛을 봤다. 신창무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조성권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결승골을 터트렸다.

울산은 보야니치, 트로아크, 이진현을 내리고 정우영, 라카바, 이청용을 투입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후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김경민이 골대 앞에서 킥을 날렸으나 상대 발에 맞고 골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다. 하지만 김경민이 다시 공을 잡아내면서 실점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양 팀은 후반 추가시간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경기는 1-0으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광주시체육회장이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5 라인-루르 세계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전남 선수단,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격

광주 4개 종목 8명·전남 7개 종목 9명 출전

“세계 무대에서 지역의 명예 드높이길 응원”

광주·전남 선수단이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5 라인-루르 세계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다.

3일 광주·전남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라인-루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이 13개 종목 295명이 출전한다. 목표는 종합 10위권 진입과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이다. 이 중 광주는 4개 종목 8명이 대한민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출전한다.

광주는 고병진 감독이 대표팀 임원으로 참가한다. 선수로는 수영 다이빙 김지욱·최강인·손성환·김승현(이상 광주시체육회), 배구 김건우(조선대), 유도 김민주(광주교통공사), 육상 이재성(광주시청) 등 4개 종목 8명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들의 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남광주시체육회장은 “선수 개개인이 국가대표이기에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임을 기억

하며 광주의 명예를 드높여주기를 응원한다”며 “독일에서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남은 지역에 연고를 둔 9명의 선수단이 7개 종목 9명에 출격한다.

선수는 양궁 남수현·유도 신채원(이상 순천시청), 펜싱 김태희(전남도청), 배구 김건우(OK저축은행)·임성하(현대캐피탈), 배드민턴 이재은(군산대학교)이다. 임원은 양궁 임동일(순천시청), 수영(수구) 진만근(전남체육회), 농구 김현국(경희대학교)이다.

이 중 대표 주자는 남수현으로 양궁 여자 리커브 종목에 출전한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남수현은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번 유니버시아드에 첫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한다.

유도 여자 국가대표 신채원도 기대주다.

신채원은 최근 세계유도선수권 혼성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용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2023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지난해 초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전남도청 펜싱팀에 입단해 좋은 기량을 펼치고 있는 김태희 또한 여자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한다.

이외에도 전남 출신으로 남자 배구에 김건우, 임성하(이상 고흥 출신·충남대 졸), 배드민턴에 이재은(화산 출신·군산대)이 참가해 전남의 위상을 높인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출신과 소속 선수들이 대한민국 대표로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다”며 “선수 한 명, 지도자 한 명의 출전이 곧 전남 체육의 성장이고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다. 앞으로도 우리 체육회는 지역 유망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조선대·광주여대, 전국대학배구대회 남녀부 ‘우승’

현대캐피탈배서 인하대·경일대 격파

조선대와 광주여대가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는 3일 경남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대학부 결승에서 인하대에 세트 스코어 3-2(21-25 25-20 25-17 23-25 19-17) 역전승을 거두고 창단 후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조선대는 첫 세트를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송수환과 몽골 출신의 오랑바야르의 활약으로 2·3세트를 따냈다.

인하대가 1학년 애시 윤경을 앞세워 4세트를

잡으면서 승부는 최종 5세트로 접어들었다.

인하대는 5세트 후반 윤경의 잇단 득점으로 14-11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 우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조선대가 상대 공격 범실과 심준호의 블로킹으로 14-14 듀스를 만들었고, 17-17에서 오랑바야르가 강타로 연속 득점하면서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앞서 열린 여자 대학부 결승에선 광주여대가 경일대를 3-0(25-23 26-24 32-30)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광주여대는 첫 세트 승리에 이어 듀스 접전을 펼친 2세트와 3세트를 모두 따내며 무실세트 승리를 거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조선대와 광주여대가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7연승 도전’ 이상혁, 12일 커·매규언과 대결

‘스마일 점퍼’ 이상혁(29·용인시청)이 모나코에서 2025시즌 국제대회 7연승에 도전한다.

파리 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와 은메달리스트 쉐비 매규언(미국), 올 시즌 이상혁보다 높은 기록을 세운 올레 도로슈크(우크라이나), 안 스테펠라(체코) 등 세계 최정상급 점퍼가 대거 출전하지만, 이상혁은 자신감이 넘친다.

이상혁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2시 55분에 시작하는 2025 세계육상연맹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한다.

올해 이상혁은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상혁은 세계육상연맹이 집계하는 2025년 기록 순위에서 3위, 최근 12개월 성적을 수치화한 월드 랭킹에서는 커에 이어 2위를 달린다.

기록 순위에서는 도로슈크(2m34), 스테펠라(2m33)가 이상혁에게 앞선다. 하지만, 이상혁은 올레 도로슈크와의 맞대결 3번, 스테펠라와 맞선 4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이상혁은 세계실내선수권, 아시아선수권, 9월 도쿄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정했다. 연합뉴스